

민족 수학의 뿌리

박 용 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역사의 시작은 어디인지 아득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을 통한 과학적인 신뢰성을 갖게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우리 수학의 뿌리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가 그 기반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수학적 관점에서 한 분야로서 여러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특히 사학 연구를 활용하여 수학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며, 민족 신화(단군신화) 이전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동양 사상과 철학의 배경으로 그 위상을 세우고자 한다. 결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고난의 시절에서 많은 상황적 변화로서 와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해석한 여러 문헌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로 신라 시대의 석학인 최치원 선생에 의해 천부경 81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해석한 사실에 주목해다 한다. 특히 한민족의 언어가 아닌 한자로 우리의 언어와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 문화의 말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민족 수학의 뿌리를 찾아 민족의 수학사를 인식하는 계기를 주고, 자주적인 민족 정서의 수학 교육에 첫 걸음을 내딛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I. 서론

지나간 과거의 그 시대, 그 상황, 그 시간 등을 결코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의 산실이며 미래를 밝혀주는 지혜 힘의 원천이 역사의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세계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반문하지는 못한다. 또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한 분야로서 수학적 측면의 시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비록 이 땅에 살아왔으며, 살아갈 이곳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너무도 방만한 외래문물의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보겠는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확실한 역사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역사의 시작은 어디인지 아득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헌을 통한 과학적인 신뢰성을 갖게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우리 수학의 뿌리에 대한 연구는 문헌 연구가 그 기반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수학적 관점에서 한 분야로서 여러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특히 사학 연구를 활용하여 수학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며, 민족 신화(단군신화) 이전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동양 사상과 철학의 배경으로 그 위상

을 세우고자 한다. 결코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고난의 시절에서 많은 상황적 변화로서 와전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해독한 여러 문헌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로 신라 시대의 석학인 최치원(고운) 선생에 의해 천부경 81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해석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민족의 언어가 아닌 한자로 우리의 언어와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민족 문화의 말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부경의 해독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해독된 것을 체계적으로 의의를 찾고 그 상황적 접근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민족 수학의 뿌리를 찾아 민족의 수학을 인식하는 계기를 주고, 자주적인 민족 정서의 수학 교육에 첫 걸음을 내딛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II. 본론

우리역사 자료의 소실은 정치적인 외세에 의한 소실(전쟁에 의한 방화, 탈취 등)과 종교적 외세에 핍박에서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외세에 의한 역사 자료의 소실은 줄잡아 10여 차례 큰 규모로 이루어져 많은 양의 자료의 소실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더불어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천부경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왔으니 거기에 담겨진 사실을 추출하고 그 가치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천부경을 역사학자들의 해독하고 있지만 다양한 해독으로 인한 난해성과 우리 글이 아닌 한자로 기록되어 아직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문헌에 의존한 역사학자들의 해독을 종합하여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려는 시도로 한국수학사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글에서는 천부경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관적 측면에서 다루고 보다 자세한 것은 계속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A. 천부경의 유래

천부경이 어디에서부터 전래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천부경¹⁾은 천제 환국(天帝桓國) 구전의 서(書)이다. 환웅대성존(桓雄大聖尊)께서 천강(天降)한 후, 신지(神誌)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문(鹿圖文)으로써 그것을 썼다. 최고운 치원(崔孤雲致遠)이 또한 일찍이 전고비(篆古碑)를 보고 갱부작첩(更復作帖)하여 세상에 전한 것이다.”

한편 택리지에서 보면, 최고운이 비서(秘書)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비서가 천부경인지도 모른다.

“임피(臨陂)의 서쪽에 있는 옥구(沃溝)는 서해(西海)에 임하였다. 자천대(自天臺)라는 작은 기슭이 바닷가에 바로 들어갔고, 그 위에 두 개의 돌로 만든 농(籠)이 있었다. 신라 때에 최고운(崔孤雲)은 이 고을

1) 김동춘 (1986). 천부경과 단군신화, pp.3-20.

의 태수가 되어 와서, 농 속에 비서를 갈무리하였다는데, 농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돌이었다.

...(중략)...

예전에는 그곳에 정자(亭子)도 있었으나, 백 년 전에 허물고, 돌 농도 묻어 자취를 없애 버려서, 지금은 가보는 사람이 없다.”

이 내용으로 보아, 최고운이 묘향산 석벽에 천부경을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계연수(桂延壽)가 발견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비서(秘書) 내지는 신서를 돌에 새긴 사실은 최고운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단군 세기에서 볼 수 있다.

“무자(戊子) 5년(B. C. 2133년), 등근 구멍이 뚫린 패전(貝錢)을 주조하였다. 추 8월에 하인(夏人)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고 신서를 구하여 갔다. 10월에 조야(朝野)가 신서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돌에 별기(別記)하였다.”

따라서 천부경은 여러 본(本)이 있지만, 묘향산 석벽에 새긴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호수²⁾는 고운(孤雲)의 사적본과 석벽본과의 상이점을 자세히 연구하였으며, 필자의 견해로는 고운의 사적본에 미세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고운의 사적본은 고운의 친필은 아니지만 후대에 나타난 것은 천부경을 암송하여 수록한 것이고 판단된다.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문제삼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먼저 최문창후전집의 “孤雲先生 史蹟”에 나오는 천부경과 묘향산 석벽본을 알아보고 해독에 대한 개관을 밝히고자 한다.

B. 두 천부경(최문창후전집의 “孤雲先生 史蹟”에 나오는 천부경과 묘향산 석벽본)

<표 1> 천부경의 사적본과 석벽본(단, 음영부분의 한자는 동음상이(同音相異)한 자)

최문창후전집의 천부경(사적본)	묘향산 석벽본의 천부경
一始無始一頑三極無	一始無始一祈三極無
盡本天一一地一二人	盡本天一一地一二人
一三一積十鉅無愧化	一三一積十鉅無震化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天二三地二三人二
三大三合六生七八九	三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一番	運三四成環五七一變
瀆萬往萬來用變不同	循萬往萬來用變不動
本本心本太陽仰明人	本本心本太陽暈明人
中天 _瑁 一一終無終一	中天 _地 一一終無終一

2) 송호수(1985). 한민족의 뿌리 사상, p.45.

C. 천부경의 해독

(1) 김동춘의 해독

해독 방법을 한자식과 빗금식으로 해독하고 있다. 먼저 한자식 해독 방법은 전체 문장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말 식의 순서를 고해야 할 대목이 있다. 빗금식은 전체적으로 순 우리말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한자식으로 상호 보완하여 해독해야 한다. 81자를 해독하는데 있어 최고의 “진리도”바탕으로 하여 그의 사상을 근원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³⁾. <표 2>의 천부경을 해독한 예로 한자식과 빗금식의 해독을 보여 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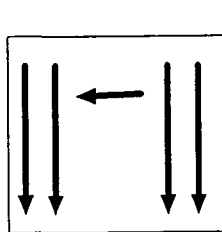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天一一地一人一三)은 한 인물의 출생 과정에 대하여 부와 모가 화합하여 수정란 형성까지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한자식).”

“일진시일(一盡始一)은 하나를 마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하나이다. 일진(一盡)이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을 뜻한다면, 시일(始一)은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을 뜻한다(빗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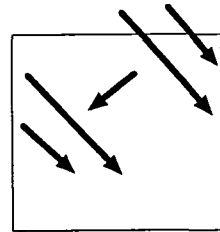
“명동종인일(明動終人一)은 명(明)은 움직여 마침내 사람 하나되었다. 우리가 흔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두고 말할 때 ‘그 사람, 참 사람 하나는 되었어’하는데, 이 말의 근원은 이 구절에서 찾아야 한다(빗금식).”

<표 2>천부경과 해독 방법

中	本	衍	運	三	三	一	盡	一
天	本	萬	三	大	天	三	本	始
地	心	往	四	三	二	一	天	無
一	本	萬	成	合	三	積	一	始
一	太	來	環	六	地	十	一	一
終	陽	用	五	生	二	鉅	地	析
無	昂	變	七	七	三	無	一	三
終	明	不	一	八	人	匪	二	極
一	人	動	妙	九	二	化	人	無



한자식



빗금식

(2) 박용숙의 해독

고운선생 서적에 실린 천부경문(<표 1>)을 해독하고 있다. 주로 수리나 기하학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인체적 우주관이 근본이 되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영적인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학문적인 방법이 본질적으로 인체의 신비와 그 복합적인 구조원리를 해명하는데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전의 해독하는 수단이 수리적인 기호였거나 기하학적인 도식(圖式)에 의거했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다.

- ① 一始無始, 一碩三極, 無盡本 ②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③ 一積十鉅, 無愧化三 天二三
- ④ 地二三, 人二三, 大三合 ⑤ 六生七八九運 ⑥ 三四成環, 五七一查演
- ⑦ 萬往萬來, 用變, 不同本 ⑧ 本心本太陽仰明 ⑨ 人中天中一 ⑩ 一終無終一

3) 김동춘 (1986). 천부경과 단군신화, pp.31~53

한자와 숫자가 섞여서 구성되어 있으며, ①~④에서는 주로 一·二·三의 세계, ⑤와 ⑥에서는 六·七·八·九의 세계, 그리고 ⑦~⑩에서는 주로 설명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체와 수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해독을 하고 있다⁴⁾.

다음은 ①~⑩ 해독의 요약이다.

- ①은 하나의 시작은 無에서 시작되며 그 하나가 불어나서 세 極을 이루고 無의 다함이 없는 근본이 된다.
- ②는 하나의 天을 一이라 하고, 하나의 地를 二라 하고, 하나의 人을 三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一이 天이며, 二가 地, 三이 人이다.
- ③은 一이 곧 세 원소가 된다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一積이라는 말은 세 개의 원소(三極)를 내포한 생명의 씨앗(原子)이 쌓여서 十으로 크게 부풀어난다는 뜻이다.
- ④는 '세 개의 축이 크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으로 풀이되며, ③까지는 주로 인체의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비해 ④~⑥에서는 인체의 형이하학적인 생성과정을 말하고 있다.
- ⑤는 ④의 연속으로 세 개의 축이 작동하는 단계에 이르면 六이 생기고 七·八·九가 생겨나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다.
- ⑥은 三과 四가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五七一이 향기처럼 퍼진다고 볼 수 있다(杏를 쯤의 오자로 간주). 특히, 인체의 기본적인 비밀을 모두 설명해 주고 있다.
- ⑦에서 萬往萬來는 하나의 인체를 상징하는 一에서 十까지의 숫자, 이른바 십진법(十進法)의 수없이 되풀이된다는 뜻이며 동시에 사람이 나고 죽고 되풀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십진수가 오고 가는 되풀이는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⑧은 本太陽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마음(심장)의 본향이 本太陽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⑨는 ⑧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 속에도 一, 우주 속에도 똑같은 一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一은 부풀어서 세 개로 분화되는 생명체(原子)를 의미한다. 우주의 원리와 인체의 원리가 그 근본에 있어서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 ⑩은 앞의 연장으로 一은 끝남이고 다시 끝남은 다시 無로 돌아간다. 그리고 一終이란 뜻과 八十一의 一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3) 최재충의 해독

천부경의 해독을 한자가 아닌 이전의 순수한 글로 그 참 뜻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며, 참다운 우리 민족의 사상을 우리말로 글로 풀어나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우리 수학의 뿌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표출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는 천부경의 특질을 수리성, 난해성, 암시성, 압축성, 법칙성, 예언성, 30진법이다라고 보고 있다. 천부경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울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⁵⁾사상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천부경의 단순한 자의해독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분석과 높은 차원에서 종합되어야 만이 그 전체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4) 박용범(2001), 수 개념의 새로운 시각, 한국수학교육학회지

5) 천부경의 기록은 우리말로 글을 한자로 표기한 이후, 다시금 오늘날 우리의 말과 글로 표현하면 一을 <한>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一(일)자와 끝의 一(일)은 순수한 우리말로 <한>이라는 뜻이며, 내용의 풀이에 따라 같은 글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몸은 이루어지느니라. 쓰임은 변하되 뿌리는 움직이지 않나니, 본디 맑은 해와 같은 것이니라.

양명인중천지일(岳明人中天地一)

은 누리에 감추어 있음이 사람 맘속에도 있으며, 사람이 이를 밝힘에 따라 은 누리에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한입과 사람이 하나되어 이루게 되리라. 밝음(빛)을 드높임은,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 오직 사람 뿐이니라.

일종무종 일(一終無終 一)

<한>은 비롯이 없는 가운데 비롯함이며, 마침이 없는 가운데 마침이 있나니, 다시 새 하늘이 열리느니라. 하나는 없음으로 끝나니, 다시 크고, 새로운 하나가 비롯되느니라.

여러 학자들의 해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 명확한 해독의 불가능: 한자로 기록된 문헌을 우리말과 글로 해독의 어려움, 구전되어 오던 자료의 변질된 부분의 해독의 어려움, 역사자료의 소실로 인한 어려움.
- ◆ 인체와 우주의 원리의 동양사상보다 우수한 원리로 해독.
- ◆ 기하학적이며, 수의 본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해독하여 수학의 세계로 연결하고 있다.
- ◆ 특히, 수를 인체와 황금비 등으로 수학의 세계와 연결하고 있으며(박용숙), 수의 본질과 민족사상의 뿌리와 수학을 연결(최재충), 동양 사상의 역(易)학과 역(曆)학, 그리고 율놀이 등에 천부경을 응용하고 있다(김동춘). 또한 송호수의 천부경 연구를 역사적 관계를 조명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C. 천부경에서 수학의 예

천부경이 왜 민족 수학의 뿌리가 되는지 수학적인 응용의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의 수학을 제 인식을 펼치는 계기가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1) 황금비⁶⁾

무궤화삼(無匱化三)은 실존하는 어떤 형체가 사라지면서 3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의 형체의 의 변화와 일치한다. 형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며, 죽어서 양기와 음기, 그리고 중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어떤 상태로 전환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오늘날의 원자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2와 3이라는 황금 비례를 증명할 수 있고, 모든 과학원리의 사각지대를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숫자는 심장의 작동 비율의 원리이기도 하다. 2 : 3이라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의 원동력이며, 또한 2 : 3은 자율 신경이며 이로써 우리 뇌의 사고 구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 : 3이라는 숫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영혼이라고 했고, 만물의 척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인지와 엄지의 매듭의 비율이 2 : 3이며, 이 비율은 우리 할머니들이 옷을 만들 때도 손가락 자(尺)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3, 4가 있다. 3은 코이며 4는 입이 됩니다. 둘 다 그 모양은 타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식도와 관련해서 설명됩니다. 식도(食道)는 하강선이고 항문을 뒤쪽으로 하여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선이 상승선인데 하강선은 음(陰)이라

6) 박용숙 (1988). 시원을 찾아서 -동이사상의 원리초, pp.47~8

고 하고 상승선을 양(陽)이라고 한다. 상승선은 코로 연결되므로 3·4가 성환을 이룬 다는 것은 코와 입이 하나의 고리로 물려 상승선과 하강선이 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된다.

그 다음으로 5·7·1묘연 구분이 된다. 5는 심장, 7은 성기이고 1은 눈이다. 다시 말해 5와 7은 존재하는 생명과 존재하는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1(눈)을 통하여 비로소 미래를 본다. 이를 묘(妙)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 불교에서 시도되었는데 불교는 최후의 진리를 확인하는 일이 곧 묘(妙)자의 비밀을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묘(妙의) 비밀은 3 : 2의 원리이다. 이 3 : 2의 황금비(the golden ratio)를 14세기경에 짜이징(독일 수학자)의 계산을 보면 1 : 1.618로 나타내 오늘날과 비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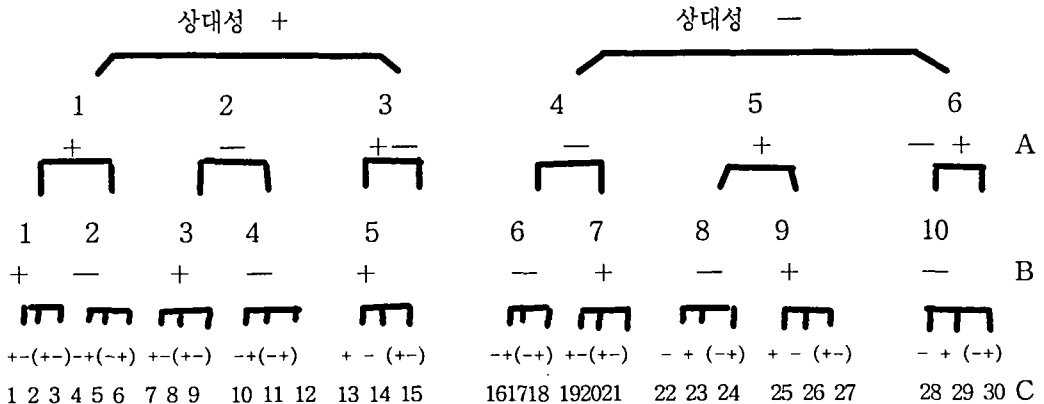
(2) 30진법

일(一)은 양이고 이(二)는 음이며 삼은 중성이며, 양 + 음 = 중(中)이 된다. 30을 문화 발전적 단계를 의미하며,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아기를 낳았을 때의 단계와 일치한다. 또한 삼십진법이기 때문에 달의 주기와 태양의 주기와 같은 천문학적인 싸이클(cycle)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30은 완성의 숫자이며, 신의 조화 역사가 30에 끝난 것을 가리킨다. 마치 달력에서 30이 되면 다시 0(zero)으로 되는 이치이다⁷⁾. 보다 체계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천부경의 숫자는 사실상 30자로 1(一)이 10자, 2(二)가 4자, 3(三)이 8자, 4(四)가 1자, 5(五)가 1자, 6(六)이 1자, 7(七)2자, 8(八)이 1자, 9(九)가 1자, 10(十)이 1자로 구성되어 있다⁸⁾.

일석삼극(一析三極), 일적십거 무궤화삼(一積十鉅 無匱化三), 천이삼(天二三) 지이삼(地二三) 인이삼(人二三), 대삼합(大三合), 삼사성환(三四成環)에서 수리적 방식은 3진법을 기초로 삼중구조의 변화성 30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⁹⁾.

<표 3> 6진 형식 30진법 조직수



7) 박용숙 (1988). 시원을 찾아서 -동이사상의 원리초, p.47-
 8) 최재충 (1985). 민족의 뿌리, p.42
 9) 최재충 (1986). 천부경과 수의 세계, p.15

원심력을 (+)라고 가정하고 구심력을 (-)라고 가정하였다. 이 원심력과 구심력 그리고 질과 양의 개념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삼중 구조적 가변성 30진법이다. 1(|)과 2(∥)가 합치면 3(|∥)이 되며, 4(∥)와 5(|)가 합쳐도 6(∥|)이 되어 123과 456은 다르다. |+∥ = |∥은 3으로 홀이며 중성적인 홀이 되고, ∥+|=∥|은 6으로 짝이며 중성적 짝이 된다. 1(홀)2(짝)3(홀): +성이 되고, 4(짝)5(홀)6(짝): -성이 된다. 또한 C의 6진 형식이 진행되면서 30진법이 구성되고, A도 6진 형식으로 구성되면서 C와 A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B는 2진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B의 2진법은 구성상 A6진법(30진법), B2진법의 3중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단순한 배열에도 질과 양, 구조와 질서, 순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III. 결 론

우리 역사의 뿌리를 수학적 관점에서 한 분야로서 여러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특히 사학 연구를 활용하여 수학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며, 민족 신화(단군신화) 이전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동양 사상과 철학의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운이 묘향산 석벽에 천부경을 남겼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을 계연수(桂延壽)가 발견했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비서(秘書) 내지는 신서를 둘에 새긴 사실은 최고운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단군 세기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최문창후전집의 “孤雲先生 史蹟”에 나오는 천부경과 묘향산 석벽본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여러 학자들의 해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 명확한 해독의 불가능: 한자로 기록된 문헌을 우리말과 글로 해독의 어려움, 구전되어 오던 자료의 변질된 부분의 해독의 어려움, 역사자료의 소실로 인한 어려움.
- ◆ 인체와 우주의 원리의 동양사상보다 우수한 원리로 해독.
- ◆ 기하학적이며, 수의 본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해독하여 수학의 세계로 연결하고 있다.
- ◆ 특히, 수를 인체와 황금비 등으로 수학의 세계와 연결하고 있으며(박용숙), 수의 본질과 민족사상의 뿌리와 수학을 연결(최재충), 동양 사상의 역(易)학과 역(曆)학, 그리고 윤놀이 등에 천부경을 응용하고 있다(김동춘). 또한 송호수의 천부경 연구를 역사적 관계를 조명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천부경이 왜 민족 수학의 뿌리가 되는지 수학적인 응용의 예를 들면, 황금비와 30진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더 깊이 있는 다음 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본 연구자 또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10) 최재충 (1986). 천부경과 수의 세계, pp.234~38

참 고 문 헌

- 박용숙 (1988). 시위를 찾아서 -동이사상의 원리초-, 서울: 한배달.
- _____ (1987). 한국의 원시사상 - 「천부경」의 해독 원리사상, 문예출판사.
- 김동춘 (1986). 천부경과 단군신화, 서울: 가나출판사.
- 송호수 (1985). 한민족의 뿌리 사상, 개천학술원.
- 최재충 (1985). 천부경 민족의 뿌리, 한민족.
- 최재충 (1986). 천부경과 수의 세계, 한민족: 유림문화사.